

“그 누가 축구엔 감동이 없다 했나”



광주FC가 6일 오후 경남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의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하며, 1, 2차전 합계 4-2로 앞서 K리그 클래식(1부) 승격을 확정지었다.

〈프로축구연맹 제공〉

K리그 챌린지 리그 4위 광주 FC가 마지막 산 경남 FC를 넘고 클래식 리그로 돌아간다.

광주 FC가 지난 6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 FC와의 승강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앞서 광주에서 열린 1차전에서 3-1 승리를 거둔 광주는 4-2로 경남을 제압하며 클래식 리그 복귀를 확정지었다.

쉽게 허락되지 않은 승격이었기에 더 감격스러운 광주의 ‘겨울전차’였다.

4위에서 시작한 험난한 여정이었다. 정규리그를 4위로 마감한 광주는 강원 FC와의 준플레이오프를 치렀다. 대회 규정상 무승부가 나오면 3위인 강원이 승리팀이 되는 단판 승부였지만 ‘승리밖에 없다’는 간절함으로 무장한 광주는 1-0 승리를 거뒀다.

플레이오프에서 만난 안산은 올 시즌 대전에 이어 상위권 질주를 멈추지 않은 강팀이었다. 클래식 무대 경험이 풍부한 이들과의 승부였지만 파비오의 폭발적인 공격력으로 3-0의 대승을 거두며 승강플레이오프 티켓을 거머쥐었다.

승강 플레이오프는 클래식 리그에서 경쟁한 팀들과 힘을 겨뤘던 경남과의 승부였다. 조용태의 골로 시작된 1차전에서 광주는 후반의 플레이로 3-1이라는 기적 같은 스코어

광주 FC 클래식 승격

강원→안산→경남…험난한 여정

디에고·임선영 부상 악재에도

김호남 동점골로 극복 ‘드라마’ 완성

를 만들어냈다.

골득실차에 앞서면서 2차전은 한결 편안한 경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공은 돌고돌고, 그라운드에는 뜨거웠다. 예상치 못했던 부상 변수가 광주를 덮쳤다.

1차전 결승골의 주인공인 디에고가 전반 14분 만에 팔을 다치며 실려나갔다. 신인 송승민을 긴급 투입한 남기일 감독에게는 또 한번 예상치 못한 부상 변수가 닥쳤다. 전반 45분 주장이자 팀의 공격을 풀어나가는 임선영이 허벅지 부상으로 쓰러지면서 두 번째 교체 카드를 사용해야 했다.

그사이 경남의 공격은 점점 더 매서워졌다. 경남은 강하게 광주의 골문을 두드리면서 경기장을 환호와 탄식으로

가득 채웠다. 그리고 후반 25분 경남 송수영이 선제골을 넣으며 위기의 광주를 흔들었다. 골득실차에 따라 1점차 패배까지는 광주가 승격을 하게 되는 조건이었지만 0-2의 패배는 경남의 클래식 잔류를 의미하는 스코어였다. 예상치 못했던 부상과 선제골 싸움에서 지며 경남의 분위기가 끌어오르고 있던 후반 30분, 앞서 결정적인 골 찬스를 놓쳤던 여름이 김호남의 골을 도우며 두 손을 번쩍 들어올렸다.

지난 15일간 광주는 팀의 운명을 건 4경기를 치렀다. ‘지면 탈락이라는 벼랑 끝에 선 선수들은 간절함으로 지옥 같은 일정을 소화하며 축구 선수 인생 최고의 기쁨을 맛봤다. 적장 브랑코 바비치 감독대행은 “광주 선수들이 더 큰 질서함으로 집중력 있는 경기를 했다. 광주의 승리를 축하한다”고 패배를 인정했다.

오랜 시간 따라다녔던 대형 꼬리표를 떼게 된 남기일 감독은 “시즌 초반 하위권에 맴돌며 어려웠을 때 부족하지만 믿고 따라와 준 선수들에게 고맙다. 여기까지 온 게 신기할 정도로 선수를 체력이 고갈됐었다. 부상도 많았는데 선수들이 주사도 맞으며 정신력으로 버텼었다. 우리 팀을 알릴 수 있는 경기였다”고 선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생애 최고의 ‘생일’

골키퍼 제종현·수비수 오도현, 자신에 승격 선물



제종현



오도현

축하의 환호성이 울려 퍼지던 관중석에서 생일 축하 노래가 나오기 시작했다.

광주 FC의 골키퍼 제종현(23)과 수비수 오도현(20)을 위한 노래였다. 두 사람은 특별한 날 특별한 축하를 받으며 인생 최고의 생일을 보냈다.

경남 FC와의 승강플레이오프 2차전이 치러진 12월7일은 제종현과 오도현의 생일이었다.

막내 골키퍼와 수비수로 자리를 잡기 위해 고전하기도 했지만 이들은 시즌 최종전이 열린 자신의 생일날 영광스런 그라운드에 오를 수 있었다.

성실하게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주전 골키퍼로 도약한 제종현은 이날 친구인 경남 송수영과 ‘창과 방패’의 싸움을 벌이며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후반 25분 골을 내주는 했지만 제종현은 몇 차례 거칠게 몰아쳤던 송수영의 공격을 잇달아 막아내며 장군명군을 주고받았다. 이후 추가골 없이 광주 골문을 굳게 지킨 제종현은 준플레이오프(강원)·플레이오프(안산 경향청)·승강플레이오프 1·2차전 등 난적들과의 4경기를 2실점으로 묶으며 승격의 주역이 됐다. 특히 고향에서 승강플레이오프가 치러지면서 제종현은 부모님이 지켜보시는 앞에서 가장 행복한 생일을 보냈다.

노련한 형님들 틈에서 기회를 노리던 오도현에게도 출전 명령이 내려졌다.

전반 종료를 앞두고 임선영이 갑작스런 허벅지 근육 부상으로 빠지게 되자 남기일 감독은 장신의 오도현(188cm)을 투입했다. 머리를 활용한 플레이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던 오도현은 착실하게 공중을 담당하면서 잊을 수 없는 생일을 보냈다.

그라운드에서 생일을 맞은 두 사람은 정원주 대표이자 주재로 진행된 승격 축하 워크숍에서 감격스러운 하루가 끝나기 전에 선수들로부터 다시 한번 생일축하 노래를 들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설움의 2년 주마등처럼…그라운드는 눈물바다

기적의 주역 원년멤버 3인방

광주 FC의 승격이 확정된 그라운드는 눈물 바다였다.

광주의 환호와 좌절을 함께 한 임선영·김호남·여름의 눈물은 더 특별했다. 원년 멤버인 임선영과 김호남, 광주대 동문인 김호남에 이어 1년 뒤 같은 유니폼을 입은 여름, 올 시즌 팀이 재창단에 가까운 변화를 겪으며 남은 이 세 명은 이적생의 입장이 됐다. 창단 1·2년 클래식에서 시간을 보내며 강등의 아픔도 함께 했던 세 사람은 미안해서 울었고, 고마워서 울었고, 기뻐서 울었다.

임선영의 눈물은 미안함의 눈물이었다. 주장 완장을 차고 팀의 운명을 건 마지막 승부에 나선 임선영은 전반 종료를 앞두고 그라운드에 주저앉아야 했다. 상대 수비수와 볼경합과정에서 허벅지를 잡았던 임선영은 마지막 힘을 다해 광주 진영으로 복귀했지만 끝내 주저앉고 말았다. 전반 14분 만에 디에고가 부상으로 빠졌던 상황이었던 터라 임선영의 미안함은 더 컸다. 하프타임 임선영은 라커룸에서 일일이 선수들을 붙잡고 미안하다고 내 뉘까지 잘해주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경기가 끝난 뒤 가장 많이 울었던 여름의 눈물에는 고마움이 담겼다. 여름은 0-0으로 맞선 후반 20분 김호남이 찰라준 통패스를 받아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을 맞았지만 아쉽게 골대를 넘기며 고개를 숙였다.

결정적인 골 찬스를 놓친 뒤 5분 만에 광주는 송수영에게



승격을 확정지은 뒤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는 임선영(왼쪽부터)·김호남·여름

〈광주 FC 제공〉

골을 내주며 0-1로 쫓기게 됐다. 한 골만 더 허용하면 승격의 꿈이 무산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 되자 여름의 표정은 더 굳어졌다.

그러나 후반 30분 여름이 앞선 실수를 만회하는 결정적인 도움을 올리며 팀을 웃게 했다. 골 포스트 오른쪽에서 오른쪽으로 찌여올린 공은 정확히 김호남의 머리로 향했고, 경남의 클래식 잔류의 꿈을 무산시키는 동점골이 됐다.

자신의 실수로 팀이 어려운 경기를 하게 됐다던 여름은 “호남이 잘 넣어주어서 정말 고맙다”며 평평 눈물을 쏟았다.

가장 믿고 따르는 형 임선영의 갑작스런 부상 속에 천금 같은 결승골을 뽑아낸 김호남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김호남은 “창단멤버로 같이 있었던 선영이 형과 옆방을 쓰는데 승격에 대한 꿈을 같이 꾸었다. 전반전에 다치면서 괜히 미안하다고 하는데 그 말이 울려왔다. 형대신 뉘를 하라고 했는데 골을 넣었다”며 “창단하고 처음 2년 동안에는 1경기만 뛰었는데 올 시즌 뛰면서 자신감도 얻었고, 내 위치와 자리를 확인해볼 수 있었다. 선수들과 함께 클래식 리그에 맞는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기쁨에 가득찬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